

목포시장, 전·현직 시장 ‘리턴매치’ 뜨겁게 달아오르다

민주당 경선서 김종식·박홍률 재격돌 불가피 삼학도 호텔·선거법 위반 등 두고 벌써 대립 정의당 여인두·무소속 최홍림도 출마 공식화

‘DJ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 목포시장 선거는 전·현직 시장의 ‘리턴매치’가 초반 선거판의 흐름을 주도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김종식 시장과 박홍률 전 시장은 4년 전 6·13지방선거에서도 막판까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초접전을 이뤘다. 새벽까지 가는 개표 끝에 292표 차로 김 시장이 힘겹게 승리했다. 당시 김 시장은 민주당 후보로, 박 전 시장은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결별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했다.

3선의 완도군수를 지낸 김 시장은 목포시장에 당선되면서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두 곳의 자치단체장을 역임하는 특별한 이력을 갖게 됐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 4년간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목포의 브랜드가치를 상승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석진증권 유치와 관광거점도시·문화도시 선정,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친환경건축·해상풍력산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잇따라 성사시키면서 침체된 목포의 활로를 되찾았다.

하지만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극명하다. 한번 결정하면 주위를 돌

아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저돌적인 행정 스타일은 때로는 적을 만들기도 했다. 삼학도 호텔 건립 등을 두고 표출된 찬반 대립은 지역사회가 양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박홍률 전 시장도 삼학도 호텔 건립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향후 선거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양 측의 갈등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김 시장 부인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되고, 이를 두고 경쟁 후보 측에서 사전 기획한 공작이라며 김 시장 측이 맞고발로 대응하는 등 파문은 지속되고 있다.

김 시장과 박 전 시장의 재대결은 민주당 경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의 열린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공천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전 시장은 지난 4년간 시장으로의 화려한 복귀를 노려왔다. 당시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도심 젊은층 표심 확보에 주력하고, 견고한 구도심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현직 시장의 대결 구도 속에서 민주당 경선에는 중요한 전 목포시의원이 출마의 뜻을 굳혔다. 8·9·10대 3선의 목포시의원을 지낸 조 전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의 당 대표실 부실장을 역임하는 등 중앙과도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을 무대로 활약한 조 전 의원은 목포시장 선거 준비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목포시의원 재선에 이어 현재 전남도의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전경선 도의원은 시장 출마를 접었다. 전남도의회에 한번 더

목포시장 출마 예정자(가나다순)



도전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향후 4년간 철저한 준비를 거쳐 차기 목포시장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시장 선거에서는 진보정당 정의당과 무소속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다. 목포에서는 선거 때마다 진보정당의 표심은 일정 정도 유지되고 있다.

정의당 후보로는 일찌감치 여인두 전 목포시의원이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목포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두 번에 걸쳐 목포시의원을 지낸 여 전 의원은 ‘같이 사는, 가치 있는 목포’를 구호로 내세우며 표발을 누리고 있다.

무소속으로는 최홍림 목포시의회 부의장이 장고를 거듭한 끝에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 부의장은 민주당 탈당자들의 최근 복당 행렬에도 합류하지 않은 채 무소속을 고집하고 있다.

최 부의장은 “그동안 시정의 견제자로서 역할에 충실했으나 아직도 시민들에게 부채와 채무가 있다”면서 “오랜 고민 끝에 시민을 위해 가시발길을 가기로 했다”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여수시장, 민주당 일색 10여명... ‘너도나도 적임자’

민주당 여수 갑·을 공천 최대 변수...달아오르는 선거판 역전의 50~70대 후보들 “위기의 여수, 내가 구하겠다”

6·1 지방선거 전남 여수시장은 권오봉 여수시장과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10여 명의 후보가 격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어서 당내 경선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각자 중앙무대에서의 활약과 전국적인 행정 경험, 핵심적인 선거 공약과 장점을 내세우며 치열한 승부 준비 중이다.

여수시장 출마 후보는 재선을 노리는 권오봉 시장을 비롯해 강화수 전 청와대 행정관, 김경호 제주대 교수, 김영규 여수시의원, 김유화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전남대변인, 김중철 전 전남도의회 의장, 김현철 전 과천시 부시장, 성해석 전 전남도지사, 이용주 전 국회의원, 전창곤 여수시의회 의장, 정기명 전 여수시청 고문변호사,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 등이 물망에 올랐다.

권오봉 시장(63)은 역대 여수시장 선거 사상 첫 재선을 꿈꾸고 있다.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 후 여수사건 특별법 제정과 국회 통과에 힘을 쏟았으며 여수사건 기념공원 조성, 여수시립박물관 설립, 여수미술관 설립, 2026세계섬박람회 추진 등 굵은 사업들을 추진했다. ‘시민과 열린 대화’ ‘현장 행정’ 등을 통해 취임 초 소통 부재라는 단점을 보완했다. 평균적인 행정가 이미지가 오히려 강렬함을 보여 준다.

강화수(49) 전 청와대 행정관은 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2001년 새천년민주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보좌관과 청와대 행정관, 국방부 정책보좌관을 지내면서 쌓은 중앙인맥이 강점으로 떠오른다. 중앙정치에 자신감이 충만한 젊고 강한 여수시장으로 당선돼 여수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김유화(58)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전남대변인은 여수시의원 출신으로 유일한 여성 출마자다. 전남에서 가장 활발한 여성 정치인 가운데 한 명으로 통하면서 사단법인 여성 의정 전남 아카데미를 통해 여성 정치인의 성장을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여성이라는 편견을 깨뜨리고 일 잘하는 시장으로 선출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김중철(67) 전 전남도의회 의장은 5선 도의원과 도의회 의장을 지냈다. 오랜 지방 정치 경험에 비해 여수의 100만 광역 도시 실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광역시화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층군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 도시 통합을 통해 ‘이순신 광역시’로 이름 짓는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그런 취지의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이다.

김현철(63) 전 과천시 부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차관보급급인 국민권의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30년 넘게 공직 생활과 지방 자치 행정에 잔뼈가 굵어졌으며 쌓은 비결을 여수시에 쏟아붓고 싶다는 정열을 발휘하고 있다.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여수발전과 시민의 삶 향상에 쏟을 각오다.

성해석(70) 여수발전아카데미 이사장은 지난달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다. 여수의 인구 감소 위기와 학생 외출 유출 등을 우려하면서 위기의 여수를 구할 적임자라고 평했다. 3선 여수시의원과 전남도의원, 보훈단체 등 경험을 토대로 교육 활성화, 인구 유출 저지, 청정해역 보호 추진, 기업 유치, 대학병원 유치로 시민 정주 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전창곤(55) 여수시의회 의장은 여수시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권오봉 시장의 재선을 저지할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당내 물밑 지원도 눈에 띄면서 시장 후보로서 정치력을 다져왔다. 굵은 소나무가 산산을 지키는 것처럼 끝까지 여수를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와 젊은 정치, 시민을 만드는 소통 정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품격의 도시건설을 표방하고 있다.

정기명(61) 전 여수시청 고문변호사는 종횡무진 텃밭을 갈아왔다. 시청 고문변호사로 시민들과 만남을 비롯해 민원 해결에 나서는 마당발로 친근감을 더해주고 있다. 시청 고문변호사 외 민주당 여수를 지역위원회 위원장,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여수선언 실천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여수를 이끌 적임자임을 자신했다. 시장 당선과 함께 봉사하는 행정의 표본으로 거듭날 각오다.

조계원(55) 전 경기도지사 정책수석은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표를 던진 바 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아 현재도 활약 중이다. 여수시장에 당선돼 위기의 여수를 구하고,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들 외에 주변 권유로 장교 중인 김경호(56) 제주대 교수, 복당 후 공천방식을 주시 중인 김영규(65) 여수시의원, 국회의원에서 시장으로 전환한 이용주(53) 전

여수시장 출마 예정자(가나다순)



국회의원이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6·1 여수시장 선거는 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의 여수갑과 김회재 국회의원의 여수를 사이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 일색의 후보군을 가리기 위한 경선이 본선이나 마찬가지로 인만큼 경선에 나설 후보들도 지역위원회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낙점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 출마도 강행하겠다는 후보도 있어 혼전 양상은 존재한다. 10여 명이 등판한 여수시장 선거는 2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공천 전쟁으로 뜨겁다 못해 별장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수=오상호 기자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를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자치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